

'예능으로 만나는 익산 문화유산'

KBS '특급공무원 시즌2' 서... 세계유산 미륵사지·왕궁리유적·근대문화거리 등 소개

익산시가 예능을 통해 백제의 수도이자 근대문화 도시로서의 매력을 전국에 알린다.

익산시는 특집 예능 '특급공무원 시즌2'가 오는 20일과 27일 오후 7시 40분에 전주 KBS 1TV를 통해 시청자들을 만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즌2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시즌1에 이어 제작된 것으로, 오는 8월 전국 방영도 예정돼 익산의 문화적 가치가 더욱 넓게 전달될 전망이다. 프로그램은 방송인 김대호와 가수 예린이 출연하며, 관광을 넘어 유산을 공감하고 해석하는 역사 테마 중심의 예능을 선보인다.

출연자들은 '특급공무원'이라는 역할을 부여받아 익산의 세계유산을 탐방하고 체험하며, 문화유산과 감성능력이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예능으로 시청자들을 만난다.

1부(6월 20일 방영)는 새롭게 조성된 익산시청사를 시작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익산세계유산센터 등을 방문하는 여정을 담았다. 이 여정을 통해 백제의 마지막 수도로서 익산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탐색한다.

2부(6월 27일 방영)는 속리사, 리스데이, 습리문화공고 등 근대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재탄생한 근대문화거리가 배경이다. 직접 상권 공간을 체

험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문화의 매력을 집중 조명한다.

아울러 근대역사관, 향일독립운동기념관, 시민역사기록관 등도 함께 방문해 일제강점기 익산의 수탈과 항쟁의 흔적을 되새기고, 도시의 깊은 기억을 시청자들에게 알린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자연재난 대비 영상회의 개최

14개 부서·27개 읍면동장 참여... 추진상황 점검 및 정보 공유

군산시가 김임준 시장의 주제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상황 점검 등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영상회의는 자연 재난 대응·담당 14개 부서와 27개 읍면동장이 참여하였다. 회의는 안전총괄과를 시작으로 건설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추진 사항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으며, 작년 수해 피해 지역의 복구 현황도 꼼꼼하게 살폈다.

특히 부서 간 2025년 여름철 재난 대비 추진사항 확인 및 점검 부분에서 참석자들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올해 한 건의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했다.

현재 중점 관리 중인 △인명피해 우려 지역 85개소 △급경사지 176개소 등에 대한 현황과 향후 사업추진 방향 또한 집중점검 대상이 되었다.

이외에도 기상청이 평년 대비 높은

강수량과 고온을 예측하는 만큼 호우와 폭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의견을 나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예방할 수 있는 인재(人災)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최중적인 점검을 위해 회의를 열었으며, 재난 대책은 어느 한 부서의 담당이 아닌 만큼 가장 기초행정 단위인 읍면동과도 정보를 상호 공유했다."라고 이번 회의를 개최한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 신고 접수 시 담당 부서 즉각 응대, △업무 떠넘기기 아닌 초 부서 적 협력, △신속한 피해종합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강 시장은 군산시의 모든 부서가 한 것처럼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을 재차 당부했으며, 각 읍면동에도 피해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피해 사실 조사에 적극 힘을 쏟을 것을 부탁하였다.

/*군산=김만호 기자

건축물 에너지 절감·쾌적 '한번에 잡는다'

국립군산대 신대옥 교수·이유진 박사과정생, 연구 성과 '주목'

국립군산대학교는 19일 건축공학부 신대옥 교수와 이유진 박사과정생이 냉난방이 동시에 필요한 대형 복합 건물에서 에너지 절감과 쾌적을 동시에 달성할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방법은 대형 복합 건물에서 냉방과 난방이 동시에 요구될 때 일반적으로 냉방을 위한 냉동기, 난방을 위한 보일러에 모두 에너지를 투입하는 대신 히트펌프를 활용한 동시 냉난방 시스템은 냉방이 필요한 공간에서 제거한 열을 난방이 필요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히트펌프의 압축기에만 에너지를 투입하는 방식은 에너지 절감 기술로 주목받아 왔지만, 냉난방 부하가 비슷하게 발생하지 않으면 히트펌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보조 냉난방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내 설정온도를 쾌적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난방과 냉방의 부하를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효율이 낮은 보조 냉난방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부하보상제어(Load-reset-control)를 개발했다.

이 방법은 성숙화된 냉수 주수를 사용해도 수조 내 잔여 에너지를 통해 일 시간 건물 부하를 평가해 난방 및 냉방 설정온도를 동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부하의 균형을 최대한 맞추어 보조 냉난방기보다 더 높은 성능계수(COP)를 가진 히트펌프 사용을 극



대화하게 된다.

다양한 냉난방 부하 발생 비율을 가정해 평가한 결과, 최대 기존의 일정 온도 제어 방법 대비 58.58%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냉방 대 난방부하 비율이 1.8:1일 때 가장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ASHRAE 및 ISO 7730 표준에 따른 열적 쾌적성도 더욱 향상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히트펌프 활용 동시 냉난방 시스템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어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인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하면서 재실자의 열적 쾌적성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사례로,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 달성 및 국가 탄소 중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에너지 및 복사 냉난방 활용 동시 냉난방 시스템'의 연구 성과물로 달성되었으며, 건축 기술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인 Journal of Building Engineering(IF: 7.4, JCR: 91.05%, Q1) 109호에 게재됐다. /*군산=김만호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수정 가결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김영란 의원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추진계획 수립, 전담기관, 노인일자리기관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2조(정의) 관련 조문 중 '노인일자리 수혜기관'을 군산시장으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지정 또는 위탁' 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변경하는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시, 전북 중장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성료

익산시가 중장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기술 창업도시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익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센터장 이효선)와 19일 익산비즈니스센터에서 '2025 전북 중장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경험에 날개를, 창업에 희망을, 전북의 미래 우리가 이끈다'라는 가치를 걸고 열렸으며, 기술 기반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중장년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고자 마련됐다.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된 11개 팀은 이날 본선 무대에 올라 아이디어에 대한 열린 발표를 펼쳤다. 특히 익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도 참가해 지역 기술창업 역량의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심사 결과 대상 2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4팀, 장려상 2팀이 선정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말도, 명품 해양관광지로 도약 시동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군산시, 관광상품 개발 위한 팸투어 성료

군산시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함께 해양관광 상품개발 전략의 하나로 진행했던 '말도 홍보여행(팸투어)'이 성료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진행된 초청 홍보여행(팸투어)에는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국구 팸투어 전문여행사의 상품기획 개발자 등 10여 명이 참여하여 말도가 가진 해양관광 자원을 탐방했다.

여행사 상품기획개발자들은 말도 등 대 코스, 걷기 코스를 직접 체험했고,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 지역, 섬 먹거리까지 관광상품 개발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봤다.

또한 이들은 올 하반기 보강공사를 마치고 개통 예정인 해상인도교 1교와 2교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해상인도교 3교까지 개통된 후 3개의



섬을 기점으로 다양한 코스별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시는 작년 12월에 '전북 해양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새만금개발청,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6개 기관과 체결한 뒤 활발한 협업을 이뤄왔다. 특히 걷기여행(트레킹) 전문여행사

를 대상으로 한 홍보여행(팸투어), 대학생 블로그단 홍보 투어, 여행 블로그와 인플루언서 홍보여행(팸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해왔다.

이중 인플루언서 홍보여행(팸투어)이었던 '여행에 미치다'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수 147만 명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여행 채널로 군산 홍보여행을 통해 제작한 '군산 바다 여행' 게시물은 현재 34만여 개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군산시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된 K-관광섬의 말도·명도·방축도(교군산군도 하이 트레킹) 걷기여행(트레킹) 코스를 중심으로 편의시설 확충, 주민 관광 서비스 역량 강화,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진행해 명품 해양관광지로 도약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시, 취약계층 '찾아가는 금융복지 상담'

익산시가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고자 금융·법률·복지 등을 연계한 현장 상담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익산시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복지 상담'이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됐다고 19일 밝혔

다. 이날 상담은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성시중·정현율) 통합사례분과와 익산시가족센터가 협력해 진행됐다.

찾아가는 금융복지 상담은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해당 기

관의 사례관리로 연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1차 운영을 시작으로 통합사례분과 소속 사회복지기관들은 부승중합사회복지관(동부권), 동산사회복지관(남부권),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등으로 상담 대상을 확대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